

소비 불평등과 빈곤 분석

Consumption Inequality and Poverty



김영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연구에서는 2005~2009년에 걸친 5년간의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가지고 가구 소비지출의 불평등과 빈곤 지표를 가구 특성별로 분석하였다. 지니계수와 GE(1) 지표로 소비지출의 불평등을 분석한 결과, 1인 가구, 저소득층 가구,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 가구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 가구의 고용형태가 자영업자이거나 실업·비경제활동 인구인 경우, 군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불평등도가 전체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GT 지표를 통해 소비지출의 상대빈곤 및 절대빈곤 정도를 측정된 결과, 상대빈곤과 절대빈곤 모두 2007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였고 그 이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상대빈곤 지표 값에 비해 절대빈곤 지표 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고, 가구 특성별 절대빈곤 정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 머리말

소비지출은 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는 변수이나, 그 중요성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 소득의 분배구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소비지출의 불평등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전통적인 소비이론에 따르면 소비는 현재 소득의 함수이고, 과거 소득이 현재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향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상호·임병인(2008)의 연구는 소득과 소비의 분배구조를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경제위기

를 거치면서 양극화된 소득과는 달리 지출의 경우에는 경제위기 기간에만 일부 변화가 있었을 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또한 이소정(2009)은 동일한 소득수준이라 하더라도 가구가 가지고 있는 욕구의 특수성에 따라 소비지출규모가 달라지고, 신용사회의 확산으로 소득능력을 초과하는 소비가 가능해졌다는 논거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소비패턴을 분석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5차(2005~2009년) 자료를 통해 가구 특성별 소비지출¹⁾의 불평등과 빈곤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소비지출의 중위수를 가처분소득과 비교함으로써 두 변수 분포의 차이를 살펴본다. 그리고 지니계수와 Generalized Entropy

(GE) 지표를 통해 소비지출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고, Foster-Greer-Thorbecke(FGT) 지표를 통해 소비지출의 상대 및 절대 빈곤 현황을 파악한다.

2. 소비지출과 가처분소득의 분포

소비지출과 가처분소득의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표 1>에서와 같이 소비지출의 중위수와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 금액 비율을 산출하

표 1. 가구 소비지출의 중위수(median) 및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지출 금액 비율

(단위: 월간, 만원, %)

가구 특성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가구	108	(80)	115	(73)	136	(80)	135	(73)	138	(71)	
가구원 수 별	1	24	(53)	27	(52)	31	(55)	34	(54)	35	(50)
	2	58	(68)	63	(59)	75	(62)	68	(52)	71	(50)
	3	166	(92)	187	(90)	221	(95)	232	(92)	239	(89)
	4	263	(108)	295	(104)	372	(119)	358	(107)	390	(107)
	5명 이상	223	(95)	263	(92)	317	(103)	332	(100)	363	(102)
중위 균등화소득의 60% 기준 가구분류	일반가구	234	(100)	239	(93)	271	(99)	280	(95)	290	(94)
	저소득층가구	32	(57)	34	(53)	38	(56)	37	(49)	37	(45)
가구주 성별	남	148	(89)	165	(83)	192	(89)	193	(82)	204	(80)
	여	35	(62)	37	(55)	42	(59)	46	(57)	45	(52)
가구주 연령	~29	131	(87)	122	(74)	142	(81)	188	(98)	179	(94)
	30~39	216	(103)	235	(96)	275	(103)	280	(99)	293	(98)
	40~49	207	(98)	248	(102)	296	(107)	303	(102)	325	(102)
	50~59	165	(91)	200	(88)	236	(92)	282	(102)	293	(100)
	60~	36	(54)	41	(51)	48	(55)	46	(47)	47	(43)
가구주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292	(104)	293	(101)	341	(108)	383	(111)	401	(110)
	자영업자	63	(53)	65	(46)	79	(53)	77	(45)	92	(49)
	기타	143	(92)	145	(86)	178	(94)	208	(90)	197	(87)
	실업자, 비경활	41	(69)	44	(63)	50	(67)	51	(59)	48	(54)
거주 지역	서울	171	(102)	190	(95)	220	(100)	241	(103)	261	(110)
	광역시	119	(83)	132	(77)	148	(81)	149	(74)	152	(71)
	시	181	(115)	205	(113)	238	(124)	240	(115)	250	(110)
	군	20	(29)	24	(27)	31	(30)	32	(29)	32	(26)
	도농복합군	20	(22)	25	(19)	33	(22)	28	(19)	28	(16)

자료: KOWEPS 1-5차년도 원자료

1) 한국복지패널에서 소비지출은 총생활비에서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을 제한 값으로 정의됨.

였다. 전체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은 월간 108~138만원으로 가처분소득의 70~80%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보다 큰 경우도 관찰되는 데, 4인 가구, 가구주의 연령이 40~49세인 가구, 상용근로자 가구, 서울 및 시 거주 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비지출의 불평등 현황

먼저 소비지출의 불평등 현황을 가구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와 Generalized Entropy(GE) 지표를 각각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지니계수로, 그 값은 0과 1 사이에 분포하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GE지표는 자료의 중복(redundancy in data) 정도를 계산함으로써 소득의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해 측정되는데 a 가 1일 때 Theil index라고 불리며 소득 불평등 관련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다. 자료의 중복, 즉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지표의 값은 0이 되며, 반대로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더 커진다.

a 가 0일 때,

$$GE(0) = \frac{1}{N} \sum_{i=1}^N \ln\left(\frac{y_i}{y}\right)$$

a 가 1일 때,

$$GE(1) = \frac{1}{N} \sum_{i=1}^N \left[\left(\frac{y_i}{y} \right) \ln\left(\frac{y_i}{y} \right) \right]$$

a 가 2이상일 때,

$$GE(a) = \frac{1}{N\alpha(\alpha-1)} \sum_{i=1}^N \left[\left(\frac{y_i}{y} \right)^\alpha - 1 \right]$$

이 연구에서 y_i 는 가구 i 의 소비지출이고, N 은 표본 가구의 수이다. a 는 소비지출 분포상의 서로 다른 지점에 위치하는 가구 간 소비지출의 차이에 주어지는 가중치로, 그 값이 커질수록 GE값은 보다 상위 소비지출 가구 간의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지니계수는 중위 계층의 격차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a 가 1인 경우의 GE값을 계산하여 지니계수 값과 비교함으로써 지니계수 계산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005~2009년도 지니계수를 가구 특성별로 계산한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의 지니계수는 0.58~0.60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지니계수가 전체 가구의 경우보다 높은, 즉 소비지출의 불평등이 관찰되는 가구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인 가구,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 가구주의 고용형태가 자영업자이거나 실업·비경제활동 인구인 경우, 군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지니계수가 전체 가구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패턴의 연도별 변화는 작았다. 가구 소득수준과 관련해서 중위 균등화소득의 60% 기준 가구분류에

따른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저소득층가구의 지니계수 값이 일반가구보다 높게 나타나 소비지출의 불평등도는 일반가구보다 저소득가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005~2009년도 GE (1)지표를 가구 특성별로 계산한 결과 <표 2>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의 GE (1) 값은 0.59~0.62로 나

타났으며 연도별 증감패턴은 관찰되지 않았다. GE (1) 값이 전체 가구의 경우보다 높은, 즉 소비지출의 불평등이 관찰되는 가구특성은 지니계수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니계수의 경우와 다른 점은 2008년 이후부터 2인 가구의 GE (1) 값도 전체 가구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표 2. 가구 소비지출의 불평등 지표 현황(지니계수)

가구 특성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가구		0.601	0.604	0.594	0.587	0.594
가구원 수 별	1	0.663	0.646	0.617	0.659	0.654
	2	0.567	0.559	0.560	0.585	0.595
	3	0.469	0.463	0.482	0.472	0.480
	4	0.437	0.473	0.437	0.424	0.424
	5명 이상	0.583	0.446	0.449	0.458	0.456
중위 균등화소득의 60% 기준 가구분류	일반가구	0.429	0.467	0.469	0.461	0.470
	저소득층가구	0.620	0.560	0.555	0.568	0.559
가구주 성별	남	0.556	0.559	0.549	0.542	0.549
	여	0.640	0.620	0.621	0.640	0.626
가구주 연령	~29	0.353	0.394	0.382	0.395	0.391
	30~39	0.373	0.385	0.408	0.397	0.390
	40~49	0.508	0.458	0.436	0.423	0.422
	50~59	0.532	0.516	0.554	0.506	0.513
	60~	0.698	0.759	0.645	0.641	0.656
가구주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0.386	0.411	0.424	0.417	0.422
	자영업자	0.619	0.607	0.601	0.613	0.611
	기타	0.547	0.661	0.555	0.485	0.500
	실업자, 비경활	0.684	0.617	0.634	0.624	0.633
거주 지역	서울	0.545	0.473	0.496	0.501	0.502
	광역시	0.538	0.607	0.537	0.534	0.548
	시	0.515	0.520	0.518	0.518	0.525
	군	0.699	0.670	0.755	0.639	0.649
	도농복합군	0.567	0.553	0.573	0.610	0.621

자료: KOWEPS 1-5차년도 원자료

표 3. 가구 소비지출의 불평등 지표(GE (1)) 현황

가구 특성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가구		0.594	0.610	0.621	0.605	0.626
가구원 수별	1	0.720	0.757	0.732	0.863	0.821
	2	0.566	0.558	0.583	0.624	0.650
	3	0.376	0.367	0.431	0.382	0.407
	4	0.307	0.344	0.318	0.305	0.311
	5명 이상	0.461	0.335	0.344	0.358	0.357
중위 균등화소득의 60% 기준 가구분류	일반가구	0.300	0.355	0.380	0.361	0.382
	저소득층가구	0.560	0.573	0.594	0.619	0.577
가구주 성별	남	0.504	0.515	0.524	0.507	0.527
	여	0.693	0.671	0.737	0.784	0.719
가구주 연령	~29	0.223	0.294	0.253	0.272	0.265
	30~39	0.233	0.248	0.286	0.268	0.252
	40~49	0.395	0.357	0.321	0.301	0.297
	50~59	0.485	0.455	0.508	0.436	0.464
	60~	0.816	0.884	0.846	0.804	0.850
가구주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0.246	0.284	0.304	0.291	0.307
	자영업자	0.682	0.656	0.651	0.672	0.660
	기타	0.461	0.624	0.507	0.404	0.442
	실업자, 비경활	0.733	0.685	0.837	0.758	0.774
거주 지역	서울	0.444	0.375	0.421	0.425	0.428
	광역시	0.465	0.537	0.537	0.500	0.534
	시	0.448	0.464	0.462	0.459	0.480
	군	0.870	0.834	0.930	0.848	0.873
	도농복합군	0.562	0.530	0.574	0.679	0.716

자료: KOWEPS 1-5차년도 원자료

4. 소비지출의 빈곤 현황

Foster-Greer-Thorbecke(FGT) 지표는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Foster, J., Greer, J. & Thorbecke, E. (1984)). 이 지표는 빈곤가구 중 빈곤과 불평등의 강도, 빈곤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측정되는 데,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해 측정되며 FGT 값이 높을수록 빈곤의

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a 가 0일 때,

$$FGT_0 = \frac{H}{N}$$

a 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FGT_\alpha = \frac{1}{N} \sum_{i=1}^N \left(\frac{z - y_i}{z} \right)^\alpha$$

여기서 z 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빈곤선이다. 이 연구에서는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두 가지 경우의 지표틀 모두 사용하였다. 절대빈곤선으로는 각 연도별로 고시되는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를, 상대빈곤선으로는 소비지출의 중위수의 50%를 이용하였다.

y_i 는 가구 i 의 소비지출, N 은 표본 가구의 수, H 는 빈곤가구(소비지출이 z 보다 작은 가구의

수)이다. α 는 지표의 민감도 척도로, α 값이 낮으면 빈곤가구에 모두 같은 가중치를 적용한 경우이며, α 값이 높으면 빈곤가구 중 더 빈곤한 가구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한 경우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α 가 1인 경우를 분석하였다.

가구 특성별 가구 소비지출의 빈곤 지표 현황은 <표 4>,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전체 가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상대빈곤과 절대빈곤

표 4. 2005~2009년 가구 소비지출의 상대빈곤 지표(FGT) 현황

가구 특성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가구		0.262	0.249	0.210	0.192	0.197
가구원 수 별	1	0.276	0.201	0.090	0.086	0.092
	2	0.136	0.124	0.110	0.117	0.120
	3	0.118	0.114	0.113	0.114	0.116
	4	0.126	0.186	0.123	0.094	0.091
	5명 이상	0.340	0.097	0.123	0.119	0.122
중위 균등화소득의 60% 기준 가구분류	일반가구	0.110	0.145	0.121	0.111	0.119
	저소득층가구	0.324	0.145	0.090	0.087	0.086
가구주 성별	남	0.233	0.226	0.193	0.180	0.183
	여	0.237	0.187	0.112	0.115	0.111
가구주 연령	~29	0.058	0.048	0.070	0.098	0.088
	30~39	0.070	0.071	0.073	0.081	0.081
	40~49	0.205	0.109	0.099	0.090	0.096
	50~59	0.162	0.156	0.216	0.147	0.140
	60~	0.317	0.484	0.110	0.107	0.108
가구주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0.067	0.078	0.082	0.088	0.085
	자영업자	0.193	0.170	0.159	0.166	0.174
	기타	0.248	0.394	0.222	0.126	0.131
	실업자, 비경활	0.353	0.159	0.111	0.109	0.110
거주 지역	서울	0.262	0.135	0.138	0.158	0.170
	광역시	0.217	0.330	0.148	0.147	0.158
	시	0.168	0.162	0.166	0.170	0.171
	군	0.281	0.212	0.454	0.089	0.090
	도농복합군	0.089	0.098	0.153	0.116	0.147

자료: KOWEPS 1-5차년도 원자료

지표 값 모두 2007년 까지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빈곤 지표의 경우, 전체 가구의 경우보다 높은 값을 갖는 가구 특성은 2005, 2006년도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절대빈곤 지표의 경우 가구 특성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구원 수의 경우 1인 가구

와 2인 가구의 수치가 5개 연도 모두 전체 가구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3인 이상 가구에 비해 높은 절대빈곤율을 보였다. 또한 저소득층가구,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 가구주의 고용형태가 자영업자이거나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인 가구, 군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5개 연도 모두 높은 절대빈곤 지표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2005~2009년 가구 소비지출의 절대빈곤 지표(FGT) 현황

가구 특성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가구		0.260	0.242	0.197	0.201	0.208
가구원 수 별	1	0.428	0.394	0.330	0.322	0.336
	2	0.307	0.289	0.248	0.293	0.301
	3	0.132	0.114	0.096	0.096	0.102
	4	0.115	0.187	0.100	0.057	0.049
	5명 이상	0.336	0.105	0.110	0.108	0.107
중위 균등화소득의 60% 기준 가구분류	일반가구	0.067	0.102	0.069	0.058	0.065
	저소득층가구	0.482	0.429	0.378	0.403	0.415
가구주 성별	남	0.215	0.201	0.159	0.161	0.164
	여	0.399	0.366	0.304	0.310	0.324
가구주 연령	~29	0.043	0.053	0.049	0.044	0.045
	30~39	0.042	0.036	0.033	0.047	0.045
	40~49	0.171	0.075	0.057	0.052	0.053
	50~59	0.150	0.119	0.160	0.084	0.081
	60~	0.429	0.427	0.312	0.342	0.350
가구주 고용형태	상용근로자	0.025	0.029	0.025	0.028	0.029
	자영업자	0.347	0.332	0.286	0.304	0.288
	기타	0.195	0.287	0.172	0.094	0.107
	실업자, 비경활	0.404	0.345	0.293	0.312	0.338
거주 지역	서울	0.176	0.079	0.063	0.081	0.090
	광역시	0.195	0.241	0.123	0.138	0.153
	시	0.112	0.086	0.076	0.092	0.094
	군	0.605	0.566	0.519	0.475	0.480
	도농복합군	0.564	0.536	0.502	0.532	0.529

자료: KOWEPS 1-5차년도 원자료

이상의 결과로부터 가구 특성별 상대빈곤 보다는 절대빈곤이 보다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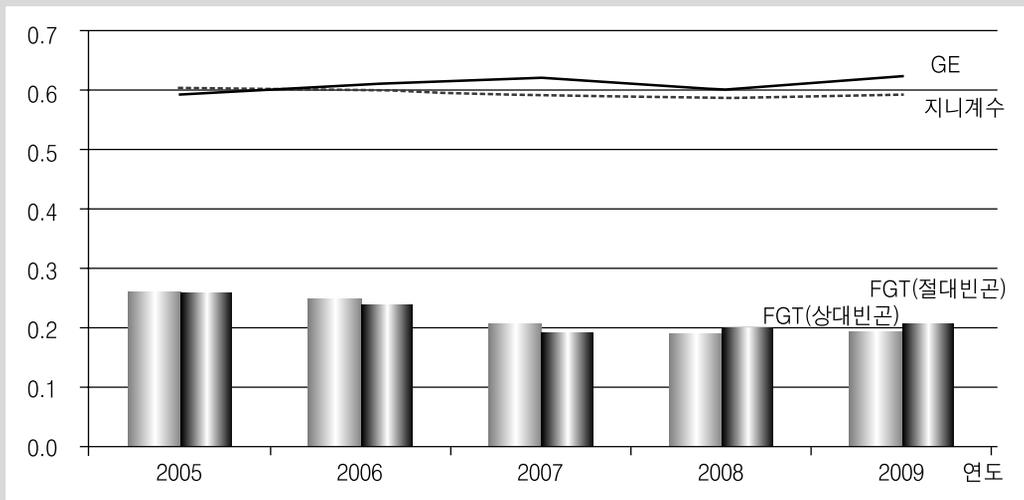
2005~2009년에 걸친 5년간의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가지고 가구 소비지출의 불평등과 빈곤 지표를 산출하였다. [그림 1]은 전체 가구의 지표값을 보여준다. 지니계수 값과 지니계수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산출된 GE (1) 지표 값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 연도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반면 빈곤지표 값은 2007년 까지 감소추세를 보였고 2007년 이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상대빈곤 지표 값에 비해 절대빈곤 지표 값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이 지표들을 가구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지니계수와 GE (1) 지표로 소비지출의 불평등을 분석한 결과, 1인 가구, 저소득층 가구,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 가구주의 고용형태가 자영업자이거나 실업·비경제활동 인구인 경우, 군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불평등도가 전체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가구 혹은 저소득층가구 집단 내부의 불평등보다 일반가구와 저소득층가구간의 불평등이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FGT 지표를 통해 소비지출의 상대빈곤 및 절대빈곤을 측정한 결과, 상대빈곤과 절대빈곤 모두 2007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별로 살펴보면 상대빈곤 보다 절대빈곤 정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문

그림 1. 소비지출의 불평등과 빈곤 지표



자료: KOWEPS 1-5차년도 원자료